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성모성월 야외미사

- *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모든 신자)
- * 꽃 봉헌 (모든 신자)
- * 헌시 낭독 (평화의 모후)
- * 미사

◆ 은총 시장

- 야외 미사 점심 식사 후
-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은총표 수에 따라 선물을 받습니다.
-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지 순례

- 일시: 한인회 행사관계로 5월 3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 장소: Basilica and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Consolation
315 Clay Street, Carey, OH 43316
(<http://www.olcshrine.com>)
- *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는 최레지나 꾸리아 단장님에게 연락바랍니다. (614)915-8315
- * 현지에 10시 45분까지 도착해 주시고 점심은 각 레지오 단체에서 준비합니다. 참석인원과 차편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영세자 교육

- 일시: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내용: 기도, 신앙인의 윤리 생활, 신앙인의 사회생활

◆ 복사단복 구입을 위해 찬조금을 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18일: 최석원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성령 강림 대축일 May 11, 2008



<성령 강림>

11세기, 채색 삽화, 폴 게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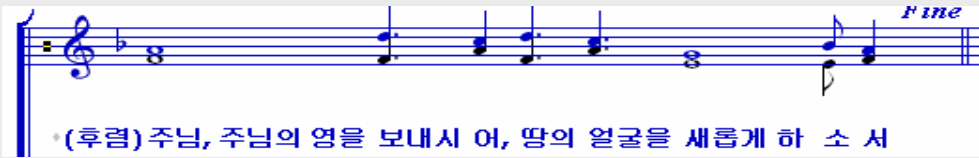
주 일 헌 금	\$582.00
교 무 금	\$370.00
감 사 헌 금	\$100.00
BAA	\$300.00
복사단 부모회 찬조	\$650.00

- 교 무 금: 신현대 박귀영 윤형석 최석원
- 감사헌금: 이민욱
- BAA: 서경환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2,3-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부속가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봉사자 안내

	5월 11일	5월 18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배재일 이준학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236 ♪ 봉헌: 142
 ♪ 성체: 174 175 ♪ 파견: 144

생명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학교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시어 평화를 기원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순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으로써 제자들이 갖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란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할 때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문을 꽂고 잠고 방안에 있어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당당하게 행하도록 힘을 주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오늘 제 1 독서는 잘 전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명 가량의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자리에 오신 성령으로, 그들 모두는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하느님의 위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말한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전해 주면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이들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교회에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탈바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잠가 놓은 문을 열고 온 세상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교회의 탄생일로 기억합니다. 성령을 통해 형제애와 친교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활기를 불어넣듯, 성령께서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각 지체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끌듯이, 성령께서도 하느님 교회의 각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활동에 따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교회 각 구성원들을 일치시켜 한 몸을 형성하는 교회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로 살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길 바란다면, 애덕을 보존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일치를 희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성에 도달할 것입니다”(강론 267,4).